

# '해체 위기' 영암군 민속씨름단 살아남았다

### '군정 홍보' vs '혈세 낭비' 씨름단 평가 엇갈려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여론조사 등 속의 거쳐 우승희 군수 "공론화위, 지속 운영 권고 수용" 일부 주민들 "이미 예견된 결론...공정성 훼손"

'군정 홍보'와 '혈세 낭비' 등 평가가 엇갈리면서 존폐 기로에 놓였던 전남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존치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20일 오전 영암군청 남산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씨름단의 존치와 투명한 운영을 요구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지난 2017년 조선경기 불황으로 해체 위기에 있던 국내 유일의 프로팀 '현대코끼리씨름단'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씨름단 운영비는 2017년 17억 2600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 17억 6200만원, 2019년 16억 1000만원, 2020년 18억 9200만원, 2021년 15억 9770여만원, 지난해 21억 5320만원이 편성됐다. 지난 6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군비가 씨름단 운영비로 투입됐다.

씨름단 운영비는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국비 4억원과 도비 3억원이 지원됐을 뿐 2018년 이후 군비와 민간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출범 당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군비 부담금을 10억원으로 묶고, 나머지 소요예산은 국·

도비를 유지하겠다는 묵시적 합의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홍보효과 의문, 대회 때마다 공무원 동원 등 각종 문제점 노출을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반면, 유·무형의 광고로 농산물 판촉과 지역 홍보 등에 지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내 찬반여론이 분분하자 영암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 공론화위원회 구성해 주민여론 수렴에 나섰다. 공론화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사회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군민 1018명을 대상으로 1·2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씨름단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51.5~52.1%로 부정적인 의견 47.9~48.5%를 다소 앞섰다.

또 군민참여단에서는 2차에 걸친 워크숍과 토론회에서 70.2~74.3%가 씨름단 유지를 찬성하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씨름단의 지



우승희 영암군수가 20일 오전 군청 남산실에서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속 운영'을 권고했다.

하지만 씨름단 운영에 대한 속의과정이 긍정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씨름단의 존치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면서 "존폐를 논의하면서 천하장사 씨름대회 개최 등 영암군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은 곳곳에서 감지됐다"고 주장했다.

우 군수는 향후 씨름단 운영과 관련, 깨끗하고 투명한 운영, 국·도비 확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암군 홍보, 최고의 씨름단 육성과 선수 보호, 지역민과 함께하

는 씨름단 운영 등을 약속했다.

우 군수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해 씨름단을 유지하되, 지역에 도움이 되고 군민이 자부심이 되도록 스포츠 마케팅과 경영마인드를 결합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쉬움은 있지만 성숙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씨름단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씨름단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목포시, 태양광 폐패널 방문 수거...재활용·재사용률 높여

목포시는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문수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전자제품자원순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이 시행되면서 진행하게 된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 주로 설치된 태양광 폐패널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20년에서 25년 사이이며, 수명이 도달한 태양광 폐패널이 방문 수거 대상이다. 수거를 원하는 경우 이순환거버넌스 콜센터(1599-0903)나 홈페이지(www.15990903.or.kr)로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수거는 해당 최대 1,200mm×2,000mm 이거나 35kg까지 가능하며,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태양광패널 업체를 통해 자체 처리해야 한다. 무상 수거 대상은 철거 및 해체 작업이 되어있는 경우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업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거가능 수량은 제한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 신안군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신안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마을 이장님들과 읍·면사무소의 협력으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체계적인 치료관리를 통해 중증화 방지를 하기 위함이다.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치매치료비·조호물품·배회예방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읍·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치매조기 검사의 중요성과 증상 등을 교육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치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치매조기검진을 독려하고, 치매에 대한 이해와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치매조기검사를 꼭 받아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함평군, 농업인 고충 해결 위한 생활법률 특강 실시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고충 해결을 위한 생활법률 특강을 실시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달 27일과 28일 양일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생활법률 특강을 진행한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자문 법무사로 활동 중인 이강일 법무사가 강사로 나서 농업인 맞춤형 생활법률 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농업법인 설립 절차 및 관련 법적 분쟁 ▲농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 ▲농지 상속·증여 등 기업승계에 따른 법률문제 ▲농지 매매 시 유의사항 및 농지법 주요내용 ▲농지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피해사례 및 예방법 등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은 이달 2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경영개선팀(☎3320-2905)로 신청하면 된다.

## 무안군, K푸드융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현경면 모촌마을·신리마을회관에서 무안 K푸드융복합산업단지 주민설명회가 지난 15일, 16일 양일간에 걸쳐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경면 모촌마을과 신리마을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혁신 성장을 주도할 첨단식품 융복합산업을 유치하려는 무안군의 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의 다양한 건의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토지편입에 따른 생계대책 마련과 대대로 살아온 마을 주거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산업단지 내에 환경 친화적 기업들의 입주를 건의했고 지역청년과 연령별 맞춤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공유하여 서로 소통하면서 주민과 상생하는 K푸드융복합산업단지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해향 지역경제과장은 "K푸드융복합산업단지는 인구 소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을 살릴 수 있는 혁신 사업으로 신성장산업인 푸드테크 기업들을 유치하여 청년들이 돌아오는 지역 성장기반이 될 것이다"면서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